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네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양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전북도 민선6기 4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비빔밥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다.

“반구십리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牛九十里)

전북도, 민선6기 마지막 확대간부회의

지난 4년 발자취 리뷰
도정 4자성어 연계
우수 성과 정리 발표
으뜸 도정상 선정 발표도

전북도가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선6기 성공적 마무리를 다짐했다.
전북도는 1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팀장급 이상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참석하여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회의는 민선6기 4년간의 발자취를 새로운 방식으로 리뷰하고, 직원

들의 애로 개선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유의 장에서는 민선6기 4년간의 역점 추진사항에 대해 영화 형태로 제작된 동영상상을 시청한 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4년간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최 실장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이 도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망하고 민선6기 전북도정 4자 성어와 연계한 우수 성과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소통과 격려의 장’에서는 삼락농정과 탄소산업, 토탈관광 등 민선 6기 핵심정책을 청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콩트와 노래로 엮어 흥미를 더했다.
아울러 ‘청원들이 말하는 민선6기 4

년간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50대 연령별 소감을 발표하고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표현했다.
이날 확대간부에서는 민선6기 최고의 성과와 정책에 대한 으뜸 도정상 선정 발표도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모두 6개 분야 36개로 2014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민선6기 4년 동안 있었던 전북도의 성과 중에서 소관부서와 성과관리과의 1차 평가에 이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2차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 작업은 지난 4년 동안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도정비전과 연도별 사자성어(四字成語)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화이부동(和而不同), 휴수동행(携手同行), 무실역행(務實力行), 절문근

사(切問近思) 등 총 6개 분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6기 큰 대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청원들이 열심히 뛰어 준 결과”라며 “민선6기가 끝나려면 아직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므로 반구십리(牛九十里)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도정 현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도정 현안 관련 탄소법(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국민연금법(연기금전 문대학원), 장애인복지법 등 주요법안의 국회통과와 군산조선소 및 GM 군산공장 재가동, 진행 중인 정부추경, 2019년 국가예산 부처단체 활동, 올해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전국(장애인) 체전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 신문 읽습니다.”

박물관 유물 보수, 전주한지로

국립전주박물관, 시에 전통한지 440여장 주문
조선 전기 문신인 김관 초상 등 수복에 활용

세계3대 박물관인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에 이어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문화재 보수에도 전주한지가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앞장서온 한지 산업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주시는 석지 채용신(1848~1941)의 작품인 ‘조선전기 문신 공양공 김관영정’ 등 전주국립박물관에서 보관중인 소장품 대표유물의 보존처리에 전주한지가 활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와 전주국립박물관이 앞서 지난 3월 체결한 국립전주박물관의 유물 보존 보수 및 기록보존에 전주한지를 사용하기로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국립전주박물관은 최근 전주시에 유물 보수용 전주전통한지 440여장(33x33cm)을 주문했다. 특히, 박물관 측에서는 전주전통한지가 문

화재 보수용으로 적합하게 한지제작 시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목관건조를 강조한 주문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전주한지재정인에게 공급을 의뢰하면서 강도와 치수안정성, 상대적 투명성 면에서 굉장히 섬세한 복원에 적합하도록 제작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도 가장 적합한 한지가 문화재 보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함께 전주전통한지를 공급했다.
시와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는 이번에 공급된 전주한지를 국립전주박물관 유물 보수용으로 적용한 후, 박물관 측의 의견을 모아 박물관 한지센터-전주한지재정인 간의 협력구도로 박물관 소장 유물의 보존·보수 및 기록보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동채재반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낙연 총리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곧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17일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대책으로 시행중인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내년에도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청년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곧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불공정 거래 감시, 기업간 협력과 이익의 공유, 대기업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성장의 엔진인 중소기업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규제혁파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 “생계형적합업



종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보호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좋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거시지표에서 완만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3%대 성장을 이룰 전망이고 수출은 역대 최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은 대체로 어렵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이 부진하다. 고용사정도 나쁘고,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수용하시느라 경영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기 위한 일리안정자금 신청률이 81%를 넘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뉴시스

사람이 도시를 품격이 전주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